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화일반

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창조적 운영과 과제

culture 'art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진흥기금의 확충, 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종사자 교육훈련, 우수 창작물의 발굴 등 한국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문예진흥원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예술의 건강성, 역동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허 권
- 유테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컬처링크 아태지역 네트워크 조정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주장해 온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참여 필요성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온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무적인 변화라고 여겨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구화로 인해 정부주도의 문화정책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 체제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진흥원 지배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된다.

모든 예술인이 함께하는 위원회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시점은 우리 문화정책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당시의 문화환경은 매우 보잘 것이 없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문예진흥원은 진흥기금의 확충, 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종사자 교육훈련, 우수 창작물의 발굴 등 한국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한국문화의 역량을 배가시켜 왔던 역동성이 단절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어 '모든 예술문화인이 함께 하는 위원회'로서의 위상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위원회로의 지배구조 전환은 몇 가지 점에서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위원회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관점을 민주적 방법에 의해 통합하고 정책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문의 역할에 만족했던 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영역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책판단이 매우 신중하고 포괄적일 수 있으며 나아가 다부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로 위원중심의 지배구조는 의견형성의 민주화와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 및 학술단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체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위원중심체제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위원의 책임과 역할이 중시되기 때문에 위원의 헌신과

역량이 사업발전에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전과 같은 단순 자문역할에 만족하고 형식적 참여가 강조된다면 그 폐단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외국의 일부문화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체제는 위원 스스로가 책임을 할당받고 사업전개도 직접 담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위원회 체제를 운영할 것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심과제

새로 출범되는 위원회 중심체제가 담당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술과 일반대중간의 간격을 좁히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작분야에서의 문제점 해소, 우수 창작인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이 강조되어야 하며 문화수용자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가로 막혀있는 여러 장애 요인의 제거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지원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수창작물에 대한 집중지원 역시 확실한 원칙 하에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문화적 참여 진작이라는 극히 막연한 추상적 원칙아래 여러 단체에게 기금을 균등 할당하는 방식은 금물이다.

우리의 문화예술 현장은 생산, 소비, 보급의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만큼 건강해 진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문화역량이 과거와 매우 달라졌다고 하나, 사실상 우리 사회는 위기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명적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할 수준까지 이른 것이 사실이다. 예술적 양화를 배양하여 악화를 배척시킬 수 있는 과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건강성은 문화적 수준에 달려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사회전반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 희망한다. 각 개인의 창의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작업은 예술인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대중의 문화적 역량을 건전한 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내외에서 예술교육이 기예를 강조한 교육이 아닌 전인적 함양을 위한 중요 학습도구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는 90년대 말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이 처한 문화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처한 문화정책의 난맥상은 재원의 빈곤, 정책수단의 낙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인식, 관점의 문제'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문화를 발전의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목표로 볼 것인가라는 논의는 이미 오래된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문화권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접목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뿐 아니라 정부 그리고 예술위원회 소속직원간의 일치된 인식, 새로운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제안에 대한 문호가 적극 열려 있어야 한다. 이번 위원회 중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이 걱정과 우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예술의 건강성, 역동성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

